

● 2017년도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320만t 공급’ 특등급과 1등급 가격 100원차로 특등급 신청대신 1등급 전환...품질 하향평준화 가속화, 유기농업자재 공급시범기관 1개소→ 3개소로 늘려...자부담을 50→ 20%로, 사후관리 부적합기준 더 완화 시급

정부는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 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품질등급 세부기준도 변경하였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은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비 1600억원과 지방비 900억 등 총 2500억원이 투입되며 농가에 공급되는 물량은 320만t이다.

● 유기질비료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속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속 유기질비료(원/20kg)	1,100	1,000	800

- 토양개량제지원 : 사업 대상자 : 유기질비료지원과 동일
- 지원 비료종류(3종류) :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 지원조건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비 80%, 지방비 20%

● 친환경농자재 지원

- 사업 대상자 : 유기질비료지원과 동일
- 지원 종류 :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및 병해충관리용자재 제품과 자가제조원료
- 지원예산 : 32억원(중앙정부 20%, 지자체 30%, 자부담 50%)
- 시범공급기관 : 1개소(충남 친환경농업인단체)=>3개소

## <2016 국회 종감소식>

### ●기획재정부 국감 “유기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품목 확대를” 국민의 당 박준영 의원 질의



“유기농자재 가격 부담을 낮춰줘야 유기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기농자재 세제혜택을 늘려야 합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자재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박 의원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장려하는 정부가 비료나 농약은 영세율 적용 하면서 주요 유기농자재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기농산물 생산비 경감 차원에서 영세율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자재는 농기계 33종과 축산용 자재 39종, 임업용 자재 15종, 비료, 농약, 사료 등이다. 유기농자재는 목초액·키토산·천적 3개뿐이다.

◆또 공시받은 유기농자재는 1400개에 달하지만, 이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품목인 목초액·키토산·천적 관련 제품은 90개에 불과하다. 농가들이 유기농자재를 구입하려면 제품가격의 10%가 붙는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농가들은 해조류를 비롯한 식물 추출물과 석고·규산염 같은 천연광물, 동물성 기름, 구리, 유황등을 영세율 적용해줄 경우 농민 부담이 연간 40억~50억원 줄어든다. 박 의원은 “높은 유기농자재 가격은 유기농산물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기농업에 필수적인 자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생산자나 소비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농업 기자재 사후환급 확대 필요(기획재정부 소속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세 사후환급 품목 확대를 주장했다. 엄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2013년 1641억원, 2014년 1616억원, 2015년 158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환급품목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었으나 조 기재부장관은 유통개선 등 동문서답에 그쳤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김광림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부가세 감면축소 주장을 의식 서면질의로 그치고 추가자료를 당 협회에 요청중이다.

## ◎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분석해보니

쌀산업 편중 심화...수급안정 대책 급선무, FTA 직불금 농가 펀돈 수령  
발동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재해대책비 과다편성...대폭 줄여야  
친환경농업직불제 내실화 기해야

◆쌀 수급균형 도모해야=예산정책처는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면 농업예산의 쌀산업 쓸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생산조정제 같은 전작 지원대책 시행 등 다각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친환경농업이 위축되면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규모도 덩달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액은 2011년 305억원에서 2015년 170억원으로 4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11년 16만ha에서 2015년 8만ha로 쪼그라들었다. 예산정책처는 농가소득 감소분을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내실화하라고 주문했다

## ◎2016년도 국정감사 결산 : 경실련 “농해수위 국감 걸할기” 혹평

김현권의원의 GMO 질의 가장 칭찬, 농약 안전관리질의는 전문성결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 대해 ‘중요 이슈에 대해 걸할기식 질의에만 머무르고, 집중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김현권 의원은 GMO 문제에 대해 집중해 이슈제기를 한 측면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권의원은 “농약업체가 스스로 개발한 농약을 시험하고 등록하는 일이 무려 10년이상 이뤄졌다는 것은 농진청이 국민보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방치해 왔다. 당장 고시를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CRO기관이 작물보호제협회 준회원으로 가입됐다고 해서 농약 안전성 GLP 제도를 모르게 한 말이다. 선진외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GLP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약 GLP 신뢰성보증과 전문기관의 안전성검증시스템과 위원회의 엄격한 절차를 모르고 약성제보만 믿은 잘못된 질의인 것이다

◆“아쉽습니다.”20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평가다. 쌀 격리해도 값 떨어지는 이유 파악 보완점 못찾고, 농정 패러다임 전환·농업예산 확충 등 FTA농어촌상생기금 논의 허술...모금 확답도 못받는 등 농정현안에 대한 농해수위원들의 질의는 농업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 ◎ 수입산 비료원료에 친환경농자재 보조금 지원?

**박완주 의원실 “국내생산 농업부산물 역차별 해소해야” 3년째 퇴비업자 제보 진실 왜곡, 일본 등 26개국이 아주까리박 등 비료 활용, 리신 국내 검사 실적 없고 이제 리신단백질 분석연구 시작**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비료 원료인 ‘피마자유박’이 인도에서 수입된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 외국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에는 1400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 부숙유기질 비료에는 차등을 두고 지원금을 책정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피마자유박의 경우 ‘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잘못 먹고 폐사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된 농업부산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3년째 모 퇴비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엉터리 주장이다. 가축분퇴비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은 퇴비 한포는 3500원이고 유박 한포는 8천 원이상이기 때문이다. 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피마자박을 수입하는 것은 당연한 세계화 추세이고, 일본 등 26개국도 수입유박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며, 퇴비도 톱밥을 수입해 사용한다. 피마자박 리신 때문에 반려동물이 죽었다는 근거가 없다. 국내에서 리신 단백질 분석이 안되어 이제 연구를 시작중이다 고로 이들이 매년 주장한 논리는 사실이 아니므로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다.

## ◎ 친환경농업, 과정 중심 평가가 옳다

**제4차 5개년계획 세부이행안 만들기 시급,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기준 설정 꼭 필요..... 한친농,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10.26.자 영농자재신문)**

- ◆친환경농업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결과 중심이 아닌 재배 과정 중심의 시스템 평가가 핵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사)한국친환경농자재 협회(회장 권옥술)는 최근 관계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 발전저해 요인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했다.
- ◆협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규제·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과정 중심의 선진국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분석 성적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정부의 농약분석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 관리제도는 유기농 선진국 제도와 비교할 때 다르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분석에 의존한 인증이 아니라 농업생산 시스템 인증을 하고 있다. 규제·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과정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

◆협회는 또 친환경농업 육성 법령개정시 농민부담 경감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제로 일원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중이다. 공시제 및 품질인증제의 합리적 일원화 방안으로 인증제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 방안과 자율표시에 따른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유기농업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적다는 민원이 집중하고 있다. 종전에 없던 공시 수수료가 민간인증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건당 400만원이 생겨나 이 때문에 가격이 올라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처럼 그 실천수단인 유기농업자재도 공시 수수료 및 신청비용 등을 정부가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또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법5개년 계획 세부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 정책과 생산, 인증, 유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2017년까지 무농약이상 재배면적 비중을 1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세부이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발표용 계획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과수 유기재배 매뉴얼 및 과수 병해충관리 유기농자재 개발 등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무농약 전환 대책, 작목별 재배 난이도를 고려한 차등적 직불제 및 친환경 보험제도 도입 등 세부 이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비료 및 유기농자재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하고 검사 대상 성분을 투명하게 고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유기농업자재 및 비료 중 농약검사기준은 분석시 정량한계만 정해 놓고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인 허용기준이 없다. 식품위생법령 또는 사료관리법령 등의 사례에 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조속히 정해 고시해야 한다. 식품 및 사료의 잔류농약검사는 분석대상 성분을 투명하게 정하고 고시해 사업자가 사전분석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유기농자재 검사는 사업자가 철저히 분석을 하고자 해도 이들 성분에 대해 고시돼 있지 않아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식품·사료검사처럼 투명하게 대상성분을 고시해 등록농약 430성분 모두 다성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유기농업 육성...쌀 10~20% 생산조절 가능”

2016 유기농업학회 심포지엄(김창길 농경연원장)

**미곡 생산면적 12만ha 유기단지로 조성, 농업환경 질 개선·쌀 관리비용 절감 가능.. 유기농 실천농가 인센티브 정책 모색을**

▲유기농업 육성으로 쌀 생산조절=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한국유기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유기농업의 전략적 육성 시 10~20% 쌀 생산조절이 가능하고 동시에 농업환경의 질적 복원과 개선이 가능한 만큼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지조성비와 유기농 직불제 확대를 통해 유기쌀 단지(20~50ha)조성과 미곡 생산면적 81만6000ha의 15%인 12만ha를 유기단지로 조성하면 농업환경 질 개선과 쌀 관리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 또 유기쌀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초·중·고 학생수 698만명/4만7000ha)과 군대급식 3식(군인 60만명/1만2000ha)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전문가포럼 구성=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한국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친환경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친환경농업 정책 자문과 정보공유, 공감대 형성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정학균 박사는 ‘유기농업의 시장적 및 비시장적 가치평가’주제발표에서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측면에서 실천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 5년정도 소득 보전을 고려한 보다 높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분의 지속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강조했다.

## ◎금년도 친환경농자재 안전사용교육 성료

**친환경농자재협회(안인 박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올초부터 46차례 올바른 친환경농자재 사용 교육 실시**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46차례 실시한 ‘친환경 농자재 활용 교육을 지난 25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친환경 농자재 안전 사용 요령 ▲병해충관리용 친환경 농자재 방제 요령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기술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



데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높였다. 안인협회 부회장은 “교육은 귀농·귀촌인, 친환경전문농업인, 산림아카데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달에 3번씩 전국 각지에서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사용자에 잘 전달돼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3년 째 실시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사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2016.10.25 한국농업신문)

### ◎올 농협의 비료매출액 1조4149억원으로 1,100억원 하락

화학비료 3400억원, 원예용 비료 1800억원, 유박유기질 비료 2150억원, 퇴비는 4520억원, 토양개량제 977억원, 기타 비료 1000억원

-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비료사업 실적은 연말기준 1조414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목표인 1조5000억원에 비해 851억원, 지난해 실적 1조5211억원대비 1062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화학비료의 경우 올해 비료 평균가격을 17% 인하한데 따라 올해말 실적이 3400억원 예상, 목표인 4400억원 대비 77.3%, 지난해 실적 4583억원대비 74%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원예용 비료 1800억원, 유박유기질 비료 2150억원, 퇴비 4520억원, 토양개량제 977억원, 기타 비료 1000억원 등이다.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 몰아 주기나 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농협의 가격인하 방식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농협의 비료사업 실적이 1100억원 감소했다는 것은 농업인의 비료구매 가격이 1100억원 줄어 들어 동시에 업계의 매출도 110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협 취급비료의 50%를 공급 비료 입찰당시 평균 24%가량 인하된 가격을 제시한 남해화학의 경우는 500억원이상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 ▶농협은 비료뿐만 아니라 아리농약 가격 7.6% 인하에 따른 66억원, 하우스필름 4.8% 인하 47억원, 농업용 배터리 11% 인하 42억원 등 올해 농자재 가격인하로 농가경영비가 1255억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하지만 비료업계에서는 낮은 입찰가격에 따른 매출손실로 인해 기존 신제품 개발, 시장개척, 수입대체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10.26자 농수축산신문)

### ◎ 농해수위, 한중 FTA 피해 지원법안 의결

10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마련 명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FTA 지원 특별법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에는 10년간 1조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김영란법 시행 한달...화훼농가 가장 된서리**

**관엽식물 몰량·가격 50%이상 급락**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다가오면서 꽃 소비가 급격히 줄고 가격도 크게 떨어지는 등 화훼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엽식물 판매물량과 가격이 50%이상 급락했으며 한국화훼농협에서 운영하는 경매장의 난 경매 유찰율이 68%까지 크게 증가했다. 또 화훼 소비량의 70~80%가 경조사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김종석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화훼 경매물량은 20%, 거래액은 30% 감소, 향후 감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화훼뿐만 아니라 한우 전문식당 매출액은 22.1%, 인삼제품 매출은 7.8%,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는 33.3%가 각각 감소해 농업전반에 걸쳐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천안서 11월2일 개막**

**국내외 28만 명 참관객 방문할 예정**

2016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가 11월2~5일 4일간 충남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팜 등 첨단농업기술자재 전시관을 비롯, 모두 9개 전시관에 국내외 400여개 업체가 참가,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인다. ▲경운·정지기계 업체 32곳 48품목 ▲재배관리기계 업체 68곳 75품목 ▲축산기계 업체 34곳 32품목 ▲시설원예자재 업체 93곳 34품목 ▲이앙·이식·파종 업체 19곳 23품목 ▲수확용기계 업체 27곳 42품목

▲농산가공기계 업체 34곳 36품목 ▲과수임업용 기계 업체 45곳 59품목 ▲비



료, 농업바이오 업체 10곳 12품목 ▲기업홍보관 13곳 28품목 ▲부품 및 기타 78곳 33품목 등에서 참가한다. 한친농도 부스 1개를 무상으로 할애 받았다.

◎2016년도 농약과학회 및 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16년도 농약과학회가 지난 10월 27~28일 설악산 대명리조트에서, 지난 20~21일 토양비료학회가 무주 덕유산리조트 카니발컬처팰리스에서 열렸다.

◎한친농, 11월27일~30일 베트남 디지털농업협회와 수출미팅

한친농은 베트남 디지털농업협회와 친환경농자재 수출 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들 20인을 초청 11월27일~30일 사이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일정이 확정되면 이를 관심있는 회원사에 공지할 예정이다. 베트남 미팅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농업/농자재 관련분야 CEO 들이다.

	<b>CHAIRMAN</b> Mr. TRUONG GIA BINH Chairman of FPT Corporation
	<b>STANDING VICE CHAIRMAN</b> Mr. NGUYEN HOANG ANH Head of DAA's The South General Director of Nam Mien Trung Aquaculture Investment Co.,LTD
	<b>VICE CHAIRMAN</b> Mr. NGUYEN HONG PHONG Head of DAA's The North Head of DAA's Technology and Education Sect. CEO of Tian Nong Group
	<b>VICE CHAIRWOMAN/ GENERAL SECRETARY</b> Mrs. NGUYEN LAN HUONG CEO of Viet Phuc Group
	<b>VICE CHAIRMAN</b> Mr. HUYNH VAN THON Chairman of Loc Troi Group
	<b>VICE CHAIRMAN</b> Mr. Vu Manh Hung Head of Agri - Function Sect. Chairman of Hung Nhon Group
	<b>VICE CHAIRMAN</b> Mr. Nguyen Trung Son Head of DAA's Policy Advocacy Sect. Chairman of Trung Son Group
	<b>VICE CHAIRMAN</b> Mr. NGUYEN BINH SON Head of Member and Communication Sect. Chairman of Delat Fbio Corp.
	<b>VICE CHAIRMAN</b> Mr. DINH DUCHANG Head of Investment Sect. Chairman of Vinomig Holdings
	<b>VICE CHAIRMAN</b> Mr. THAN VAN HUNG Member of DAA's Trade promotion Sect. Chairman of Visimax Corp.
	<b>VICE CHAIRMAN</b> Mr. TRAN VAN TOAN Member of DAA's Technology and Education Sect. Chairman of Otran Group

 Digital Agriculture Association **ACTIVITIES**



Conference on Agriculture Investment Promotion in Moc Chau, Chaired by Minister of MARO Cao Duc Phat, Japan Ambassador Fukuda Hiroshi and Son La top Leaders.



DAA Investment Promotion Delegation to Moc Chau with Minister of MARO Cao Duc Phat, Japan Ambassador Fukuda Hiroshi and Son La top Leaders.



DAA joined Group of Agriculture, Rural Investor meeting with the Heads o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pening Ceremony of Agriculture Cooperation Center of FPT - Jujitsu.



DAA reported to Ho Chi Minh City Chairman, Nguyen Thanh Phong on Safe Food Project.



DAA Investment Promotion Delegation to Hoa Binh Province, meeting with local authority.

